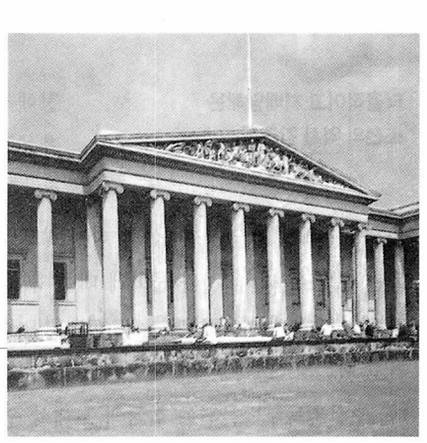
박제된 전통에서 생활과 축제의 공간으로

현대사회에서 박물관의 기능

임봉길 |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박물관을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이 결합된 실제적인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사진은 대영박물관.

전통문화에는 유물과 유적, 민속놀이 혹은 전통 사상체계, 예술작품만이 아니라 '생활'도 포함된다. 그것은 다시 말해 전통문화의 복원이나 활성화에는 반드시 사람과 삶이 포함돼야 함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안동 하회마을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고가옥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3백년 전의 생활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전통상례의 보전은 상여를 메고 나갈 상여꾼과 마을주민들의 협동체계가 살아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전통공예, 세시풍속, 민속놀이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그것들은 생활체계 속에서 활성화될 때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

문화의 다양한 측면 결합된 입체 공간 돼야

더욱이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필수적이다. '생활 속에 살아 있는 문화'의 재구성과 활성화 전략은 체험 · 교류 ·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세계관광의 최신조류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오늘날 관광은 단순한 감상이나 소비행위가 아니라 관광객 스스로가 주체가 돼 체험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의미와 감정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상징적 문화실천을 구축하는 상상의 공동체 구성 행위다. 그러므로 종전의 박제화된 대상으로서 문화상품과 관광객의 몰인격적 관계를 벗어나 박물관을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이 입체적으로 결합된 실제적인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박물관은 전통문화를 관광개발에 이용하는 데 널리 활용돼왔다. 그러나 현재적인 의미를 상실한 과거의 유물 · 유적을 유리 진열실 안에 전시해두고 관객이 그걸 바라보기만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날의 박물관은 과거의 유물과 유적이 현재적이고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져 관객들 스스로 직접 참여해 다양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장(場)으로 기능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를테면 오늘날의 '확대된 박물관'의 개념이란 집과 음식과 놀이 그리고 의례들이 자연경관과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서 숨쉬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이는 열린 공간 속에서 체험하며 관람객이 주체가 되는 박물관인 것이다. 이런 '다차원적인 문화 복합'(multidimensional cultural complex)의 공간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경험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관광산업이다. 일본 사가현의 비파호 생활박물관이 그런 예다.

현대의 생활기능에 맞게 박물관 개조해

또 다른 예로, 전통적 삶의 공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보다는 현대의 감각과 생활기능에 맞도록 개조해 이곳에서 생활하게 하는 정책적인 예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중소도시 아비뇽, 엑상프로방스, 브장송, 몽리에 등 도시 중심 속의 옛 전통주거지는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제한구역을 만들고, 대리석과 돌로 재포장해, 이곳에 작은 규모의 전통유물 전시장, 전시와 연관된 상품을 파는 상점, 연극무대, 카페 등을 유치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서로 어우러져 즐길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현대적 전통 공간으로 변형시켜놓았다. 또한 이곳에서 전통적 의례와 축제를 행함으로써 전통을 생활 속에서 느끼게 하는 예를 볼 수 있다.

요사이 국립민속박물관도 이런 흐름을 따라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반인과 학생 관람객들이 흥미를 느끼고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전통 탈, 허수아비의 전시와 더불어 세시풍속놀이를 그곳에서 재현해 자신들을 전통 속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색다른 전시를 기획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시도는 인사동 골목의 정비에서도 볼 수 있지만, 너무 상업화된 모습에 관광객은 물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리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 같다. 어쨌든 박제된 전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현재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

임봉길 교수는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몽페리에3대학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구조주의 혁명》 등을 펴냈고, 《문화인류학의 역사》 《정치인류학》 등을 옮겼다.